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8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운주사 이미지를 이용한 도자 문화상품 디자인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황경희

운주사 이미지를 이용한 도자 문화상품 디자인

A Study on the Ceramic Cultural Product Design,
utilizing the Unjusa Image

2018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황경희

운주사 이미지를 이용한 도자 문화상품 디자인

지도교수 박재연

이 논문을 디자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황경희

황경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한선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손영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재연 (인)

2017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2장. 이론적 배경	4
제1절. 문화상품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1. 문화상품의 정의	4
2. 문화상품의 기능과 역할	6
제2절. 사찰 관광 기념품 현황 분석	7
1. 사찰 관광 기념품의 현황	7
2. 사찰 관광 기념품의 문제점 분석	10
제3장. 운주사의 조형성 연구	11
제1절. 운주사의 배경	11
제2절. 운주사의 조형성	13
1. 와형석조여래불	14
2. 석조불감	15
3. 광배석불좌상	16
4. 석불군	17
5. 구층석탑	18
6. 쌍교차문 칠층석탑	19

7. 원형다층석탑	20
8. 칠성바위	21
제4장. 작품제작 및 설명	23
제1절. 디자인 계획	23
제2절. 제작과정	24
제3절. 작품 설명	26
제5장. 결론	49
참고문헌	51

표 목 차

<표 1> 문화상품의 개념	4
<표 2> 문화상품의 재료별 분류	5
<표 3> 사찰 관광 기념품 현황	7
<표 4> 유약 조합비	25
<표 5> 작품 전체 모티브	26

도 목 차

<그림 1> 경동타워 제작 ‘청정골 화순 명품타워’	9
<그림 2> 와형석조여래불	14
<그림 3> 석조불감	15
<그림 4> 광배석불좌상	16
<그림 5> 석불군	17
<그림 6> 9층 석탑	18
<그림 7> 7층 석탑	19
<그림 8> 원형다층석탑	20
<그림 9> 칠성바위	21
<그림 10> 작품제작과정	23

작품목차

<작품 1> 운주 - 잔	28
<작품 2> 운주 - 술잔	30
<작품 3> 운주 - 화병세트	32
<작품 4> 운주 - 받침대 1	34
<작품 5> 운주 - 받침대 2	36
<작품 6> 운주 - 사각접시	38
<작품 7> 운주 - 합	40
<작품 8> 운주 - 수저받침대	42
<작품 9> 운주 - 병마개	44
<작품 10> 운주 - 명함꽃이	46
<작품 11> 운주의 바람	48

ABSTRACT

A Study on the Ceramic Cultural Product Design, utilizing the Unjusa Image

Hwang Kyeong hee

Advisor : Prof. park jaeyeon. Ph. D.

Department of Desig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societies, economics, politics, and culture have become globalized. As the area expanded, the importance of regional culture grew even bigger and The most cosmopolitan can be the most cosmopolitan.

Researchers think that studying and working on the cultural heritage of a region should be prioritized. Among the cultural heritage sites of Gwangju, Jeonnam Province, unjusa is located in Hwasun, closest to the researcher.

Unjusa is a unique buddhist temple where a number of stone buddhist images and stone pagodas are located as of now, there are only 91 stone buddhist images and 21 stone pagodas left, but it is written in [Dongkukyojeiseunglam] revised in 1481 that there were a thousand stone buddhist images and a thousand stone pagodas, so they might have existed untill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most of these buddhist images show a similar style such as flat and folksy facial features, stone pillar-shaped bodies, awkward and unsymmetrical arms and hands, rough and regular wrinkles of the clothes, thickly faced stones, and these are unique style of the buddhist images in unjusa. Beside typical stone pagodas, there are unusual pagodas such as globular-shaped pagoda and disc-shaped pagodas, and every pagoda has different style.

Also, there is a mysterious mystery that can not compare with various symbols and patterns and compare with other temples. There are many tourists coming to visit unjusa, and they to make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unjusa available

in real life. I felt the need for a ceramic culture products design containing unique images of unjusa.

It is widely used as a cultural souvenir sold in everyday life, and it is hoped that one can easily convey the value of our culture in everyday lif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현재 세계화 시대를 맞아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의 요소가 글로벌화 되고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기에 지역의 문화유산을 연구하여 고유한 특색을 살린 문화 상품의 디자인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

광주 전남의 여러 지역문화유산 중 화순에 위치한 운주사는 좀처럼 보기 드문 특이한 사찰이다. 중국, 일본, 인도 등의 다른 나라의 불상들을 보면 절대적인 공간에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사찰인 경주의 불국사의 불상과 석탑 또한 사찰의 중심건물인 극락전과 대웅전에 위치해있다. 그러나 운주사는 석불과 석탑이 건축물이 아닌 사찰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좀처럼 보기 드문 특이한 사찰이다. 운주사의 불상과 석탑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있어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고, 불상을 숭배하는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무언가를 소원하는 느낌을 준다. 운주사는 과거에 천불 천탑의 성지로 알려졌었고 현재 91구의 석불과 21기의 석탑들이 놓여있다. 운주사는 석탑과 불상에 있는 다양한 형태와 문양, 기호의 의미뿐 아니라 다른 사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동국여지지 東國輿地志>에 고려 혜명(惠明)스님이 1,000여 명과 함께 천불 천탑을 조성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혜명스님은 970년 (광종21)에 관촉사 대불을 조성한 혜명(慧明)스님과 동일인으로 보고 있어 운주사가 고려 초에 건립되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후 정유재란 때 왜적에 의해 폐사되었고, 1800년경에 설담자우(雪潭自優)스님이 무너진 불상과 불탑을 세우고 약사전 등을 중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¹⁾

운주사는 고려시대 불교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불교유산으로 불상과 불탑은 세계불교문화권 어디에도 보기 어려운

1) 운주사, <http://www.unjusa.kr/>, 2017. 10

창의적이며 특별한 유적이다. 1970년대 이후 전남대학교 박물관의 수차례의 발굴과 학술연구를 통하여 유적에 내재한 역사적인 사실과 가치에 대한 고찰을 함으로 운주사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지역문화유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사찰 관광 기념품의 디자인 개발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타 사찰과 달리 소박하고 꾸밈없는 신비한 비밀을 지니고 있는 운주사의 불상과 석탑의 조형성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일반 사찰에서 판매되고 있는 관광 기념품을 넘어 사람들이 우리 지역문화의 가치를 손쉽게 전달받을 수 있고, 제품 사용 시 운주사의 고유한 이미지를 상기할 수 있는 도자 문화상품 디자인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운주사의 많은 불상과 석탑 중 대표적 유물을 모티브로, 유물의 조형성을 살린 다양한 응용 제품을 제작하여 지역 문화의 감성을 담은 문화상품으로 실생활에서 애용될 수 있는 디자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운주사 천불 천탑에 대한 지역적인 특징과 역사성, 운주사 주요 유물에 대해 알아보며 그 중에서도 운주사를 대표하는 불상과 석탑을 선정하여 그 특징과 조형성 고찰한다. 또 국내 사찰 관광 기념품의 현황을 검토하며,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운주사의 이미지를 이용한 도자 문화 상품을 디자인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방법을 밝히고 본 연구의 당위성을 도출한다.

제 2장에서는 첫째, 문화상품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 및 정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본다.

둘째, 사찰 관광 기념품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또한 문화 상품이 갖춰야 할 조건과 도자 문화 상품 디자인을 제안한다.

제 3장에서는 운주사의 배경과 운주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석불과 석탑을 선정하여 조형성을 고찰한다.

제 4장에서는 시작품의 디자인 의도와 디자인 전개 및 제작을 소개하고 연구자의 작품을 게재하였다.

품목에 있어서는 잔, 수저 받침대, 냄비 받침대, 화병, 병마개, 식기, 명함꽂이, 벽걸이 장식접시 등이다.

작품 성형은 주입성형, 물레성형, 판성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유약 및 안료 본연의 색감 표현에 적합한 백색도가 높은 소지인 슈퍼화이트 슬립과 백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방법으로 전기 가마를 사용하여 산화 소성하였다. 1차 소성 850℃, 2차 소성 1250℃로 투명유, 코발트유, 청자유를 사용하였다. 보다 심미적인 장식 표현을 위하여 830℃에서의 전사기법을 활용한 3차 소성을 더하였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본론에서 제기된 내용을 요약하고 운주사 이미지를 이용한 도자 문화상품 디자인을 제안하며, 앞으로의 작업방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문화상품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문화상품의 정의

현재 사회에서 문화를 경제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의식이 확대되었고 문화의 경제화와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현대인들의 문화적 감수성 또한 높아지고, 문화적 가치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며 각 국가와 지역의 독창적이고 특별한 문화적 가치가 담겨진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상품의 개념을 문화관광부의 2000년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현 시대에 맞춰 내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하였다.

<표 1> 문화상품의 개념²⁾

일반적 의미	'문화산업'의 모든 결과물로 문화와 경제적 영역이 결합되어 산업적 생산과 소비의 대상물이 되는 모든 분야	
정책적 의미	광의	문화 산업국 / SNS(Social Network Service)·영화·텔레비전 프로그램·음반·도서·신문·잡지·출판 등
	협의	문화 상품과 / 한국적인 소재와 표현기법, 제작기술 등을 인용한 공예분야·생활 문화상품·미술품·캐릭터 상품 등
관광 상품 (관광기념품)	공예품과 일상용품 등 관광객이 방문지에서 구입하는 모든 상품	
특산품 (토산품)	지방이나 나라에서 생산되는 독특한 고유 상품 공예품·식품·의류 등의 상품 포함	
현대공예품	공예품 중 현대적 디자인·표현법·소재 등을 활용한 제품 전통적인 것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작품도 포함	
민속공예품 / 전통공예품	한국의 전통적인 공예기술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 인간무형문화재·명장 등의 작품을 전통공예품으로 명명	

문화상품이란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쌓아온 모든 언어, 종교, 예술 등의 활동인 문화를 상품화 한 것으로 국가나 지역, 민족의 고유한 독창성·창의성·정서적인 정보와 의미를 담은 생산물을 상품화한 것이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2항을 보면, “문화 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여가성·오락성·대중성이 구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드는 유·무형 재화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로 방송영상물·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한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문화재와 관련된 산업이다.³⁾

문화를 상품화하여 그 종류가 다양하며 분류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산업자원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문화상품의 재료별 분류를 다음과 같이 <표 2>로 정리하였다.⁴⁾

<표 2> 문화상품의 재료별 분류

종류	품목
섬유	인형, 수예품, 민속의상, 가방, 스카프, 에이프런, 수건 등
도자	다기세트, 컵, 접시, 받침, 스푼, 식기제품 등
나무	액자, 탈, 용기, 지팡이, 부채, 인물·동물상 조형물 등
금속	펜꽂이, 편접시, 종이칼, 메모꽂이, 정리함, 장신구 등
철기	나전철기, 건철공예 등
보석	산호, 진주, 루비, 오팔, 비취 등의 장신구
종이	한지, 지공예품 (함류, 지우산 등), 조화, 조명 등
기타	휘장, 양초공예품, 인쇄물, 디퓨저 등

2) 문화관광부, 자료로 보는 문화상품, 2002, p.5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6. 9. 30

4) 산업자원부, 전통 소재에 의한 한국 문화 상품의 특성화 연구, 2000

따라서 문화상품은 문화를 소재로 이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산업 활동의 결과물로, 짧은 시간 내에 제작이 가능한 공산품과는 다르게 문화적 정보나 의미를 표현하는 창작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역문화의 독창성과 정서를 담은 문화적 요소와 첨단 기술의 편리성이 결합된 문화상품이 창출된다면 대중들에게 보다 자연스럽게 다가갈 것이다.

2. 문화상품의 기능과 역할

현대사회에서 문화산업이 급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문화를 담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국가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에 따른 문화상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문화상품은 전통과 문화 등이 내재된 상품으로 해당 문화권에서 생산되는 여러 제품들은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 나라·지역의 상품을 경험한 후에 해당 상품에 대한 호감도를 형성하고, 국가·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아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친선과 문화의 교류 및 국가홍보 전위대로 국위를 선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⁵⁾

둘째, 문화상품은 특정지역의 자연환경과 풍속, 유적 등의 특성을 소재로 하여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원재료를 가공해서 생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상품 산업의 성장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문화상품은 국가 또는 각 지역의 특색을 담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과 소장가치가 있다. 따라서 관광자원의 역할과 지역의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5) 전현정, 문화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 전통 칠 기법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2007, p.17

제2절. 사찰 관광 기념품 현황 분석

1. 사찰 관광 기념품의 현황

사찰에는 여러 문화재가 있어 탐방, 수행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지리적 위치가 산속이라는 점과 사찰의 특성상 상업적인 부분이 배제되며 수행공간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찰의 내밀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게 할 만한 관광 상품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지정된 한국대표 사찰로 한번쯤 가보았을 경주 불국사의 기념품 상점에도 신라불교의 문화유산이나 한국 사찰을 대표할 만한 기념품은 많지 않다.⁶⁾

<표 3> 사찰 관광 기념품 현황

사찰	기념품 판매 현황	기념품목
경주 불국사	   	불국사 문화재 피규어, 지압용품, 팔지, 풍경, 나무주걱, 부채 등
여주 신륵사	   	불상 및 스님 피규어, 도자기 구두, 도자기 재떨이 등

6) 허학영, 도제 사찰 기념품 디자인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논문, 2009, p.43

치악산 구룡사		나무국자, 스카프, 풍경, 액 세서리 등
화순 운주사		불상 및 스님 피규어, 나무 지압봉, 자석 메모꽂이, 액 세서리 등

<표 3>의 각 지역의 사찰 관광 기념품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불국사의 사찰 관광 기념품으로는 불국사 문화재 피규어, 지압용품, 팔지, 풍경, 나무주걱, 부채 등이 있다.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신륵사는 불상 및 스님 피규어, 도자기 구두, 도자기 재떨이 등을 판매하고 있고,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에 위치한 구룡사는 나무국자, 스카프, 풍경, 액세서리 등을 사찰 관광 기념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의 사찰 관광 기념품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은 미비하고 부채, 열쇠고리, 액세서리 등 다양한 중국산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실정이다.

운주사의 경우 사찰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운주사의 이미지를 이용한 화순의 관광 상품 사례를 조사한 결과 경동타월에서 2012년에 ‘청정골 화순 명품 타월’이라는 이름으로 화순군청 관광 기념품을 제작한 바 있다.



<그림 1> 경동타월 제작 ‘청정골 화순 명품타월’

이 상품은 운주사뿐만 아니라 화순군의 로고와 휴양림, 문화유산과 관광지인 고인돌 및 특산품인 파프리카의 이미지를 소재로 개발되었지만 운주사를 방문하여 구입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또한 사찰입구에 있는 상점은 어느 사찰과 마찬가지로 운주사의 특색 있는 기념품이 아닌 자석 메모꽂이, 액세서리, 열쇠고리, 지압봉 등을 판매하고 있다.

2. 사찰 관광 기념품의 문제점 분석

사찰 관광 기념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사찰 부근에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나 지역성·문화재를 주제로 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미비하다. 각 사찰마다 고유한 특색은 고사하더라도 다녀온 사찰을 기념할 사찰 기념품과 실 사용가능한 도자 문화 상품군의 부족이 우리나라 사찰 기념품의 현 상황이다. 대부분의 관광 상품들이 그렇듯 해외에서 저가 상품들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이 우리 문화를 나타내는 사찰의 관광 기념품으로 판매 되는 것은 부적합하다 사료된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제작된 피규어 등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웰빙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를 산업영역에서 활용한 문화상품에 친환경적인 소재가 더해진다면 더욱 가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연구자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이용하고 실생활에서 사용가능한 다양한 도자 문화상품 디자인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3장 . 운주사의 조형성 연구

제1절 . 운주사의 배경

운주사는 천불 천탑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 불교의 깊은 혼이 서려있는 한국의 여느 사찰에서 발견하기 힘든 독특한 형태의 석불과 석탑이 있는 사찰로 불가사의한 전설의 신비를 가지고 있다.

운주사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이 안치된 전각인 천왕문과 사천왕상이 없다. 문과 울타리도 따로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찰의 형식을 찾아 볼 수 없다.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의 기록 ‘운주사 재천불산 사지좌우산척 석불석탑각일천 우유석실 이석불 상배이좌(雲住寺在天佛山寺之左右山脊石佛石塔各一千又有石室二石佛相背以坐)’ 라는 유일한 기록이 있다. 이는 ‘운주사는 천불 산에 있으며 절 좌우 산에 석불 석탑이 각 일 천기씩 있고 두 석불이 서로 등을 대고 앉아 있다.’ 는 내용으로 그 당시에만 해도 석불과 석탑이 일 천기씩이 실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조 인조 10년(1632)에 발간된 능주읍지에도 ‘운주사 재현남이십오리천불산좌우산협석불석탑일천우유 석실이석불상배이좌(雲住寺 在縣南二十五里千佛山左右山峽石佛石塔一千又有石室二石佛相背而座)’ 라는 비슷한 기록이 있어 일천기씩의 석불 석탑이 존재했음을 다시금 확인 할 수 있다.⁷⁾

운주사의 운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운(雲)은 구름이고 주(住)는 살다 혹은 머무름으로 구름이 머문다는 뜻으로의 해석할 수 있는 운주(雲住)와 운(運)은 움직임이고 주(舟)는 배를 뜻하므로 배를 움직인다는 뜻인 운주(運舟)로 해석 할 수 있다.

운주사의 불교유적은 전남 화순군 도암면의 해발 1백여 미터의 낮은 산 남북 방향으로 뻗은 두개의 산 능선과 계곡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낮은 구름의 산등성이 사이, 계곡 여기저기에 불상과 불탑이 다소 불규칙

7) 운주사, 위의 사이트, 천불 천탑 조성의 역사, 2017.10

하게 서있다. 운주사 천불 천탑은 풍수지리사상에 입각한 행주론, 이는 한반도를 배의 형국으로 보았을 때 운세가 일본으로 향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풍수론에서 발원되었다.

운주사의 창건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은데 가장 알려져 있는 것은 도선 국사에 대한 이야기로 도선 국사는 통일신라 말의 선승으로 도선이 하룻밤 만에 도술을 사용해 천불 천탑을 쌓으려했다는 불가사의한 전설과 미륵의 혁명사상을 믿고 소망하는 천민들과 노비들이 들어와 사찰과 천불 천탑을 만들어 공동체 사회를 형성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밖에도 운주사가 불교사원이 아닌 도교사원이었다는 주장과 밀교사원이었다는 주장, 민간 신앙의 기복처라는 이야기까지 존재한다.

또한 운주사에는 1,000기의 탑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운주사에 천기의 석탑이 있었고 이것들은 언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건립하였을까? 이들을 모두 일시에 건립하였을까? 아니면 여러 번에 나누어 건립한 것일까? 또한 이들의 배치 형식에는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일까? 천은 불교에서는 만수로서 무량무수의 여래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에 천불신앙은 중국의 남북조시대부터 시작하여 당대까지 각지에 천불이 조성되었다. 천불신앙이 전래되어진 것은 삼국시대 후기부터였으며 고구려에 처음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토된 고구려 불상의 명문에 천개의 불상에 대한 조성사실이 보여 지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천불상의 조성 예는 경덕왕 때부터 문헌에 등장하고 화순 운주사와 근접한 구례 화엄사와 해남 대흥사의 천불전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천탑의 예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천이라는 숫자가 실수가 아닌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이 가득한’ 이란 개념을 가진 불교의 상징 수의 의미로만 사용되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운주사의 탑의 건립과 사찰의 창건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신비스러운 사찰이라 석탑의 건립 배경이나 연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⁸⁾ 1984년부터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수차례의 발굴조사와 학술조사를 하였으나 창건시대와 창건세력, 조성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확증을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운주사 천불 천탑은 여전히 불가사

8) 고춘심, 운주사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논문, 2007, p.6

의한 유적으로 남아있다. 양식적으로 보면 운주사의 석탑은 대부분 고려 중기이 후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운주사 석탑들에서 나타나는 다양성과 정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건립연대를 낮추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들이 보여준 정형적인 감각은 사라지고 다소 무계획적이고 거친 기법, 토속적인 모습이 운주사 석탑들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주사의 석탑에 대해 조잡하다거나 불심이 부족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제2절. 운주사의 조형성

운주사 불상들은 여러 기가 집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각각의 크기도 다르고 얼굴의 모양새도 각양각색이다. 흘쭍한 얼굴형에 단순한 선으로 처리된 눈과 입, 가늘고 긴 모양의 코, 단순한 옷자락 표현이 인상적이다. 민간에서는 불상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 아기부처라고 부르기도 하며 일반적인 사찰의 불상과는 달리 친근한 이미지로 우리 이웃들의 얼굴을 표현하는 듯 소박하다. 다른 사찰에서는 그 유형을 찾아볼 수 없는 불상의 배치와 제작 기법은 운주사 불상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다른 사찰의 불상들을 보면 절대적인 공간 및 주요 건물 주변에 자리하고 있지만 운주사는 석불과 석탑이 건축물이 아닌 사찰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좀처럼 보기 드문 특이한 사찰이다. 운주사의 불상들은 낮은 땅에서 이상세계를 바라는 중생의 모습으로 집단적인 무언가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운주사의 석탑들은 모두 각각 다른 모양으로 다양한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 장소에서 이처럼 수많은 석탑이 3층, 5층, 7층, 9층 등 다양한 층수와 모습으로 만들어진 예가 없다. 일반적인 기단 또한 없고, 탑신 석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진 것이 특이하다. 연꽃무늬가 새겨진 둥글고 넓은 옥개석으로 만들어진 석탑과 동그란 모양의 발우(승려의 공양그릇)형 석탑, 마름모꼴의 기하학적인 무늬와 꽃모양이 새겨진 9층석탑등이 세워져있다.

사찰주변에는 91구의 석불과 21기의 석탑이 있으며 그 중에서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고 다른 사찰에서 보기 어려운 양식과 형태의 조형미를 기준으로 운주사의 대표적 유물인 와형석조여래불과 석조불감(보물 제797호), 광배석불좌상, 석불군, 9층 석탑(보물 제796호), 7층 석탑, 원형다층석탑(보물 제798호)과 칠성바위를 선정해 조형성을 연구하였다.

1. 와형석조여래불



<그림 2> 와형석조여래불

주요 석불인 와불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73호 와형석조여래불로 해발 100m 높이의 운주사 서쪽 산 정상에 위치한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고 길게 누워 있는 2구의 불상이다.

불상의 길이만 해도 10m가 넘는다. 와불은 운주사의 돌부처 중 가장 전형적이고 특히 운주사 관련된 설화의 중심이기도 하다. 불상의 양식을 보면 틀이 거의 무시되고 평면적이며 토속적인 얼굴모양과 신체가 어색하고 불균형한 팔과 목, 자연스럽게 얹으면서도 규칙적인 옷 주름, 둔중한 조각법이 특징이다.

와형석조여래불 전경사진의 두 석불은 운주사의 많은 석불 중에서도 가장 중

요한 요소이다. 크기는 각각 12.7m와 10.3m나 되는 국내에 있는 석불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와불의 확대모습과 도안의 좌상을 살펴보면 상호는 달갈형이고 길고 넓은 귀는 눈썹 부근에서 입 아래까지 형태 만 거칠게 묘사하였으며 눈썹과 코는 약간 도드라지게 조각되어 있다. 특히 코와 입사이의 인중을 나타낸 것이 특이점이다. 수인은 가슴에 두 손을 중앙으로 모은 형태로 가사 지락에 덮여 있으며 선각의 옷 주름은 사선형의 평행선을 반복해 넣었다.⁹⁾

다른 사찰의 와불의 형태는 옆으로 누워있는 보다 입체적인 형상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운주사의 와불은 똑바로 누운 형태이며 저부조로 이목구비와 옷 주름이 새겨져있어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2. 석조불감



<그림 3> 석조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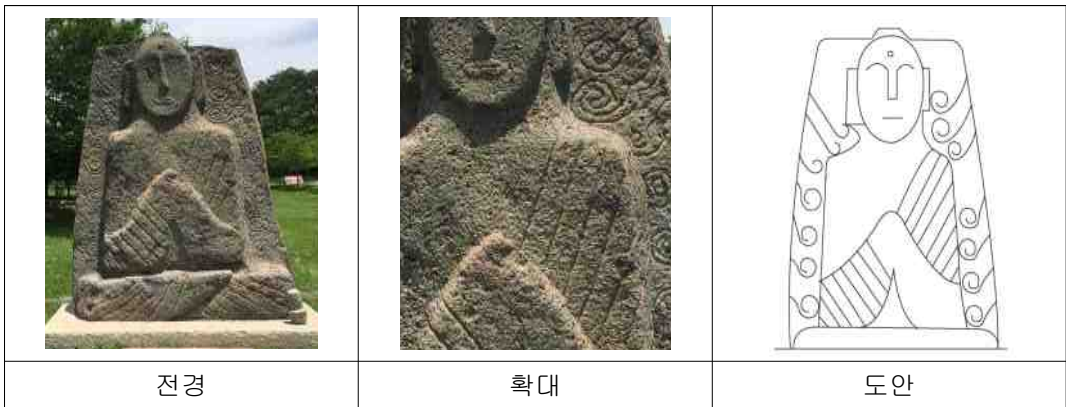
운주사 석조불감은 보물 제 797호로 불감의 높이는 5.3m이다. 불감이란 불상을 모시기 위해 만든 방이나 집을 가리키며 일반적인 건축물보다는 그 규모가 작다. 다탑봉 골짜기에 위치한 석조불감은 건물 밖에 만들어진 감실의 전형적인

9) 문소이, 운주사 이미지를 형상화한 주얼리 문화 상품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석사논문, 2002, pp.7-9

예이다. 감실은 모양은 직사각형이며 판돌로 양쪽 벽을 막아두고 앞뒤를 통하도록 하였고, 그 위는 목조 건축의 모양을 본떠 옆에서 보면 팔(八)자모양의 옥개석을 지붕처럼 얹어놓았다. 감실 안에는 두개의 불상이 모셔져있는데 등이 맞붙은 특이한 모습으로 흔히 볼 수 없는 양식이다. 남쪽 석불좌상은 2.45m, 북쪽 석불좌상 2.64m의 높이로 만들어졌다. 불상을 새긴 수법은 그리 정교하지 않으며 고려시대에 들어서 나타난 지방적인 특징이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은 커다란 석조불감을 만든 유례를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감실 안의 두 불상이 등을 서로 맞대고 있는 양식 역시 특이한 형식으로 고려시대 불교미술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광배석불좌상



<그림 4> 광배석불좌상

광배석불좌상은 2005년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74호로 지정되었다. 운주사의 석불 중 유일하게 광배가 있어 광배석불이라 불린다. 9층 석탑과 석불도감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불신은 고부조로 돌출되어있고 얼굴은 가름한 타원형이며 그에 따라 수인과 눈썹, 코, 귀는 양각으로 처리하였고 광배는 선각으로 되어있다. 눈썹과 눈썹사이가 도드라지게 묘사된 것이 눈에 띄고, 광배의 표면에는 선각으로 화염문이 새겨져있고 선으로 표현한 옷자락이 특징이다. 왼쪽 어깨에 걸쳐진 옷 주름은 일정한 간격의 평행선을 이루어져있고 주름의 각선은 좁고 얇다. 왼쪽 무릎 아래로는 상체와는 반대 방향으로 주름 선을 새겼다.

사찰에서 흔히 보았던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좌상의 형태와 다르게 사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평면적인 신체와 옷 주름의 표현이 인상적이다.

4. 석불군



<그림 5> 석불군

운주사 석불의 특징인 집단적인 형태의 석불군은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 (가) 석불군부터 서쪽 산등성이에 분포한 불상군을 차례로하여, (바)석불군 6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 그림은 (가)석불군으로 9층 석탑의 동쪽에 위치해있다. 산등성이의 암벽에 위치한 다른 석불들과 달리 운주사 입구를 지나 가장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석불군이다. 암벽의 높이는 약 8m, 너비는 약 20m로 수직 단면에 대좌를 놓고 불상을 안치했다. 하나의 좌상과 5개의 입상으로 암반 단면에 기대어져 있다. 타 사찰에서도 석불군을 발견할 수 있지만 석불들의 각각의 크기와 형태가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운주사 석불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5. 구층석탑



<그림 6> 구층석탑

석탑의 양식을 보면 현재 21기의 탑이 남아있으며 3층탑, 5층탑, 7층탑, 9층탑 등 층수도 다양하며 한 장소에 수많은 석탑이 자리하고 있고 각 탑의 석면에 여러 가지 문양이 새겨져있다. 그 중 주요 석탑인 구층 석탑은 보물 제 796호로 운주사로 들어가는 남쪽 골짜기의 첫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커다란 바윗돌로 바닥돌과 아래층의 기단을 만들고 그 위로 윗 층 기단을 쌓은 후 탑신을 세운 모습이다.

석탑의 확대모습을 보면 탑신부에 그 안에 꽃모양이 새겨진 마름모꼴의 기하학적인 문양이 조각되었다. 특히 아랫부분에 사선이 새겨진 지붕들은 납작하고 넓으며, 전체적으로 규모가 거대하면서도 세련된 형식을 하고 있다. 운주사의 여러 많은 석탑 중 가장 높지만 상대적으로 지붕들이 넓기 때문에 안정된 느낌을 준다.

석탑에서 볼 수 있는 기호체로 각 면마다 이중으로 된 마름모꼴을 새기고, 그 안에 꽃무늬를 양각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기법은 운주사 석탑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루마니아 출신의 미국 종교학자인 엘리야데는 마름모꼴의 문양은 여성의 상

징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이처럼 마름모꼴과 관련된 문양은 인류의 사유사(思惟史)에서 최초로 그 자체의 생명력과 안녕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구석기 시대에 여러 가지 형태의 마름모꼴 무늬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마름모꼴 문양이 구석기 시대에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고대의 문양과 민속예술품에서 보이는 마름모꼴 문양은 일반적으로 땅을 상징하고 농경지의 경계로 해석되어 졌고 실제 고대 이집트와 중국에서도 경작하는 모든 땅을 사각형으로 표시하였으며 하늘은 원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사각형은 땅을 원은 하늘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¹⁰⁾

모든 민간신앙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 핵심이 곧 풍요와 다산이듯이 이는 민중들의 이상으로 묘사되고, 농경사회에서의 풍요와 다산은 곧 많은 곡물을 의미하고, 많은 자식을 낳는 것도 역시 풍요다산에 속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풍요로 굶주림과 가난으로부터 평안을 가져다주기를 소원하는 중생들의 기도의 표상으로도 볼 수 있다.

6. 쌍교차문 칠층석탑



<그림 7> 쌍교차문 칠층석탑

10) 선미라, 문화기호학으로 풀어보는 운주사 천불 천탑의 문양들, 담론 201 Vol.9 No.1,2006, p.95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277호의 쌍교차문 칠층석탑은 광배석불좌상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높고 큼직한 방형의 기단석 위로 방형좌대를 만들고 그 위에 탑신부를 얹은 형태이다. 비교적 안정되고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외형은 신라 전형양식을 띄고 있으면서도 각층 탑신석 측면의 마름모꼴의 형태와 함께 특이한 쌍교차문(XX)형태를 새기는 등 국내 석탑의 양식에서는 그 유례가 없다.

7. 원형다층석탑



<그림 8> 원형다층석탑

보물 제798호로 지정된 운주사의 원형다층석탑은 높이 5.71m의 석탑이다. 지대석부터 시작해 현재 6층까지 남아있고 석조불감 북쪽에 위치해있다. 원형다층석탑은 지대석과 기단부의 탑신, 옥개석까지 모든 형태가 원형을 이루고 있다. 기단중석은 10각이지만 이 10각도 원에 가까우므로 전체 석탑이 원형부재로 구성되어있다고 하겠다. 구성 석재는 원형의 지대석 위에 높직한 원형 괴임을 각출한 원형의 지대석이 1석, 기단중석이 5매석으로 이루어졌으며 연화상대석, 탑

신 및 원반형 옥개석은 모두 1석으로 조성되었다¹¹⁾).

연화상대석은 아랫면과 옆면에 앙련(仰蓮)의 연꽃 문양이 얇게 조각되어 있고, 석등의 상대석과 비슷한 양식 및 구조 형태로 볼 수 있다. 원반형태의 옥개석은 윗면이 평평하여 지붕의 기능을 하기 보다는 공양물 등을 올려놓는 탑재(搭載)형태의 조형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 2, 3층은 탑신을 3등분하여 측면에 2개의 수평선이 둘러졌고 4, 5, 6층은 측면에 1개의 선이 수평으로 그어져있다. 각 층의 원형의 옥개석은 상층으로 올라감에 따라 완만해져 마치 불탑의 꼭대기에 있는 기둥 모양의 장식부분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석탑의 도안을 보면 기단갑석의 윗부분이 편평하고 옆면이 둥근 형태에 비해, 탑신의 지붕돌은 아랫부분이 편평하고 윗면이 둥근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석탑의 형태를 좇지 않은 고려시대 각 지방에서 나타났던 형태로 유래 없는 양식이다.

8. 칠성바위



<그림 9> 칠성바위

운주사 불적의 왼쪽 산등성이에 위치한 7개의 바위는 언뜻 보면 원반형 7층 석탑의 옥개석으로 보이나, 배열 상태와 원반 지름의 크기가 북두칠성의 방위각

11) 김기용, 운주사 원형석탑의 윤행적 성격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논문, 2016, p. 131

이나 밝기와 매우 흡사하여 칠성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¹²⁾

칠성바위 확대모습과 바위의 도안을 보면 칼로 도려낸 듯 커다란 원반형 석재로 북두칠성의 배열상태로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고 북두칠성은 수많은 별 중 유난히 눈에 띄고 향해 할 때에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과 같은 길잡이 역할을 하며 천문현상은 기후에 대한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과 삶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나아가 칠성바위는 칠성신앙으로 과거, 사람의 삶에 더욱이 밀착되었었고 사찰에 가면 대게 마주하는 칠성각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북두칠성에 대한 큰 관심과 또한, 신앙과 연관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지역의 칠성바위는 일반적인 모양의 바위로 이루어져 있지만 운주사의 칠성바위는 원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이점이며 그 크기 또한 이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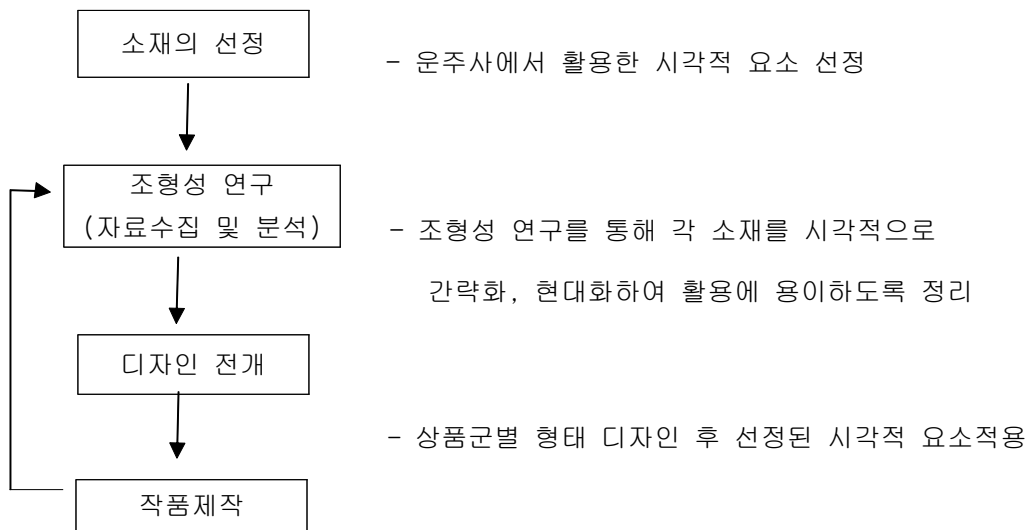
12) 문소이, 위의 논문, p.16

제4장. 작품제작 및 설명

제1절. 디자인 계획

본 논문에서 화순 운주사를 보고 느낀 편안함과 감동을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도자 문화상품 디자인을 제안 하고자 한다. 중국, 일본, 인도 등의 불상을 보면 절대적인 공간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운주사의 불상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있어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불상을 숭배하는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이 수많은 불상 또한 무언가를 소원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영원하는 느낌을 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리하고 있는 천불 천탑, 우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정서 그 자체인 운주사를 기존 사찰 기념품과는 달리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 보다 현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고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도자 문화상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그림 10> 작품제작과정

제2절 . 제작과정

본 논문의 시작품 제작과정은 각 아이템의 조형적 특성에 맞추어 성형법을 다르게 하였다. 주입성형, 물레성형, 판성형을 중심으로 소지를 선택하고 건조과정을 통해 1차 소성, 시유, 2차 소성, 전사기법을 활용한 작품은 3차 소성 순으로 산화 소성하여 제작하였다.

1. 성형

본 논문의 시작품 성형과정은 다음과 같은 기법을 이용하였다

머그컵과 수저받침대, 합과 같은 형태는 석고 틀을 이용한 공정으로 다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하나의 똑같은 형태를 반복적으로 제작하고자 주입성형법을 이용하였다.

운주 잔, 그릇, 병마개와 같은 형태는 기본적인 형태를 원형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물레성형법을 이용하였다.

플레이트와 벽걸이로 사용되는 조형물은 도판기 또는 손으로 밀대를 이용하여 소지를 납작하게 밀어 판으로 만든 후 자르고 성형하는 판성형법을 이용하였다.

2. 소지

주입성형시 사용된 소지는 슈퍼화이트 슬립으로 상품제작의 특성상 다량생산이 필요하고 제품으로서 깨끗하고 단아한 느낌을 위해 백색도가 뛰어난 실크소지를 사용하였다.

소지는 유약의 발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백색도가 좋아 소성 후에도 흰색을 내며 고온용 점토인 백자토를 물레성형과 판성형시 사용하였다.

3. 시유 및 소성

유약 선택에 있어서 소성시의 안정감과 발색도를 고려하여 고온유를 선택하였다. 전체적으로 덩빙 기법으로 시유하였고 일부 작품은 무유하여 1250℃로 2차 소성하였다.

<표 4> 유약 조합비

	투명유	청자유	코발트유
장석	64	23.8	60
백운석		4.4	20
석회석	22	15.5	
규석	7	37.9	15
아연화	7		
카오린		8.6	5
코발트			1
와목		9.8	
산화철		1.2	
루타일			5

소성은 산화소성으로 1차 소성 시에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8시간에 걸쳐 850~900℃까지 소성하고, 2차 소성 시에는 1250℃까지 올려 준 뒤 기물표면에 유약을 고루 녹이기 위해 1250~1270℃ 내외에서 온도를 유지시키며 연장 소성하였다. 전사기법을 활용한 작품의 경우 2차 소성된 기물에 전사 작업을 하고 830℃로 3차 소성하였다.

제3절 . 작품설명

<표 5> 작품 전체 모티브

작품명	작품모티브	제작방법	작품사진
운주잔		주입성형	
운주술잔		물레성형	
운주 화병세트		물레성형	
운주 받침대 1, 2		판성형	
사각접시		주입성형	
운주합		주입성형	
운주수저받침 대		주입성형	
운주병마개		물레성형	
운주의 바람		판성형	
운주 명함꽂이		주입성형	

<작품 1> 운주 - 잔

제작방법 : 주입성형

소 지 : 슈퍼화이트 슬립

유 약 : 투명유, 코발트유

소 성 : 산화소성, 1차 소성 850℃, 2차 소성 1250℃

사 이 즈 : Ø 80 × 90 (mm)

9층 석탑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거대하면서도 세련된 형식을 하고 있으며, 석면의 꽃과 마름모 문양은 다른 사찰의 석탑에서 발견되는 문양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 본 연구자는 탑의 외곽과 탑신 석면에 꽃무늬와 중첩 마름모무늬를 모티브로 하여 생활용 문화상품인 잔을 디자인하였다.

본 작품의 형태는 곧고 높은 석탑의 외형을 착안해 직각 형태로 제작하여 안정감을 주었고, 기면은 9층 석탑의 꽃과 마름모 문양을 머그의 장식 요소로 차용하여 양각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요철을 많이 준 고부조로 그림감이 있도록 제작 하였다.

석탑의 마름모 문양을 그대로 새긴 기본형을 바탕으로 음·양각의 다양한 배치를 통해 확산 되고 있다. 이는 민중의 이상인 풍요와 다산을 이루고자함을 마름모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색채는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흰색과 생명과 자유, 희망, 평안 등을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4단계 그라데이션 하였다.

<작품 1> 운주 - 잔



<작품 2> 운주 - 술잔

제작방법 : 물레성형

소 지 : 백자토

유 약 : 청자유

소 성 : 1차 소성 850℃, 2차 소성 1250℃

사 이 즈 : Ø 100 × 110 (mm)

운주 술잔은 운주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요소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한 조형의 와형석조여래불과 칠성바위를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하였다.

작품 진행과정에 있어서 컵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들어 각각의 기물을 접합해 하나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윗부분에는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낮은 저부조로 와형석조여래불의 형상을 담았다. 수많은 석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대한 와불이 세워지면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된다는 전설은 믿음이 되어 아직까지 전승되고 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천지개벽 사상이 유포되듯 현시대의 어려움과 막막한 현실을 위로하기 위해 컵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컵 안에 편안히 누워있는 와형석조여래불이 세워져 운주사 창건을 상기시키고 전설을 이루는 재미를 주고자하였다. 백일몽에 불과한 것일지 모르나 와형석조여래불이 별떡 일어나 유토피아 세상이 올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계속하여 전설을 이야기한다.

컵의 아랫부분은 고배와 같은 형태로 하여 신에 대한 존경과 신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칼로 도려낸 듯한 커다란 원반형의 석재인 북두칠성의 배열로 놓여 있는 칠성바위를 높은 굽에 투각 하여 조형성이 돋보이게 디자인하였다. 또한 북두칠성이 기후변화를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별자리로 하여금 하늘에 평안과 안녕을 가져다주기를 영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작품 2> 운주 - 술잔



<작품 3> 운주 - 화병세트

제작방법 : 물레성형

소 지 : 백자토

유 약 : 청자유

소 성 : 1차 소성 850℃, 2차 소성 1250℃

사 이 즈 : Ø 80 × 90, Ø 90 × 170 (mm)

운주사의 칠성바위는 칼로 자른 것 같이 반듯한 원형의 형태로 보존되고 있음에 감탄하게 되고, 북두칠성의 방위각과 흡사하게 놓여 있어 그 기이함에 또 한번 놀라게 한다.

그러나 산등성이에 위치한 칠성바위 사이사이에 소나무가 자리하고 있어 칠성바위의 그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칠성바위의 조형성 부각을 위해 높이 솟은 소나무 보다 키작은 들꽃의 이미지를 연상하고자 화병과 컵에 표현하였다.

북두칠성은 밤하늘 수많은 별들 중에 더욱이 눈에 띄는 별자리로 항해 할 때에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길잡이 역할을 하며 천문현상을 통해 기후에 대한 변화를 알려준다. 이처럼 하늘에서의 작은 변화가 땅에 영향을 주는 것을 땅에 있는 칠성바위가 하늘의 북두칠성과 이어지도록 곧게 올린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물레 성형을 통해 원통형 화병과 컵을 성형한 후 화병에는 칠성바위를 음각, 컵에는 양각하였다. 이 후 점토의 물성을 이용해서 기물의 겉 표면을 돌 질감을 내어 칠성바위의 표면질감을 표현하였고, 판성형을 통해 칠성바위 중 가장 가운데 위치한 큰 바위를 따로 입체화하여 접합시켜 손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작품 3> 운주 - 화병세트



<작품 4> 운주 - 받침대1

제작방법 : 판성형

소 지 : 슈퍼화이트

유 약 : 투명유

소 성 : 1차 소성 850℃, 2차 소성 1250℃, 3차 소성 830℃

사 이 즈 : Ø 120 × 5, Ø 175 × 5 (mm)

운주사는 좌절된 불사의 현장이라는 미완의 꿈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로 시인 임동학은 시집 『운주사 가는 길』에서 동결 건조된 것과 같이 남겨진 푸른 기억들을 운주사의 꿈으로 환치하면서 현재에 되살려 자기 존재의 거점으로 삼고자 하였다.

운주 - 받침대1은 전사 기법을 통해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의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확대하여 실루엣을 금빛으로 미완의 꿈을 빛내고자 하였고, 여백은 『운주사 가는 길』의 시를 레터링 하여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작품의 사이즈는 칠성바위 비율에 맞추어 작업을 진행하여 플레이트에 또 한 번 운주사의 뜻을 더하였다.

제작 과정은 슈퍼화이트 소지를 사용해 판성형 하였고 1차 소성 후 운주사의 9층 석탑, 7층 석탑, 원형다층석탑, 와형석조여래불의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확대하여 실루엣을 남겨두고 운주사 가는 길의 시를 레터링하였다. 투명유 시유로 2차 소성 후 금색 전사지를 사용해 담고자 하는 이미지의 실루엣을 전사하여 3차 소성하였다.

<작품 4> 운주 - 받침대1



<작품 5> 운주 - 받침대2

제작방법 : 판성형

소 지 : 슈퍼화이트

유 약 : 투명유

소 성 : 1차 소성 850℃, 2차 소성 1250℃, 3차 소성 830℃

사 이 즈 : Ø 150 (mm)

운주 - 받침대2는 성형 후 1차 소성된 기물에 검정색 안료를 사용해 운주사의 와형석조여래불, 광배석불좌상, 9층 석탑, 7층 석탑, 원형다층석탑, 칠성바위의 이미지를 도안화하여 핸드 페인팅하였고, 2차 소성 후 맑고 깨끗한 순백색의 바탕에 밝게 빛나는 보름달을 금전사지로 표현하였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다 나은 미래와 삶을 소망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마주하였을 때, 때론 밤하늘에 떠있는 밝은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빈다. 만월이 가장 밝게 떴을 때 운주사를 찬란하게 비춰 따듯하고 편안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여, 간절히 소원하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응원 의 메시지를 담아 디자인하였다.

<작품 5> 운주 - 받침대2



<작품 6> 운주 - 사각접시

제작방법 : 주입성형

소 지 : 슈퍼화이트

유 약 : 투명유

소 성 : 1차 소성 850℃, 2차 소성 1250℃

사 이 즈 : 350 × 190 × 20 (mm)

운주 - 사각접시는 정적인 직선의 형태로 사각플레이트는 쟁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반 부조 장식을 제외하였고, 일반 접시보다 길게 디자인하여 제작하였다.

1차 소성 후, 운주사의 천불 천탑을 각각 석불과 석탑으로 나누어 코발트 안료로 페인팅하였다. 주요 석불로는 와형석조여래불과 광배석불좌상, 많은 석불군 중 운주사에 들어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가)석불군이 있고, 석탑은 9층 석탑, 7층 석탑, 원구형석탑, 원형다층석탑, 석조 불감의 이미지를 도안화 하여 운주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투명유 시유 후 2차 소성하여 전체적으로 백색과 청색으로 깨끗하고 맑은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 6> 운주 - 사각접시



<작품 7> 운주 - 합

제작방법 : 주입성형

소 지 : 슈퍼화이트

유 약 : 투명유

소 성 : 1차 소성 850℃, 2차 소성 1250℃, 3차 소성 830℃

사 이 즈 : 각각 \varnothing 100, 125, 155 × 70 (mm)

합이라는 것은 뚜껑과 몸체의 상하구조로 구성되어 물건이나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과거부터 뚜껑이 있는 합은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사용 목적은 변함이 없다.

백색도가 높은 슈퍼화이트 소지를 사용해 주입성형 후 3가지의 사이즈를 한 세트로 하여 제작하였다.

1차 소성을 거쳐 초벌 된 기물에 검정색 안료를 사용하여 천불 천탑의 비밀을 간직한 석탑과 석불들, 운주사 입구의 전경과 석불군을 한 폭의 수묵화처럼 뚜껑에 표현하였다.

뚜껑과 상반되게 2차 소성 후 몸체의 테두리를 금 전사로 라인을 주고 3차 소성하여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 7> 운주 - 합



<작품 8> 운주 - 수저받침대

제작방법 : 주입성형

소 지 : 슈퍼화이트 슬립

유 약 : 투명유

소 성 : 1차 소성 850℃, 2차 소성 1250℃

사 이 즈 : 80 × 30 × 10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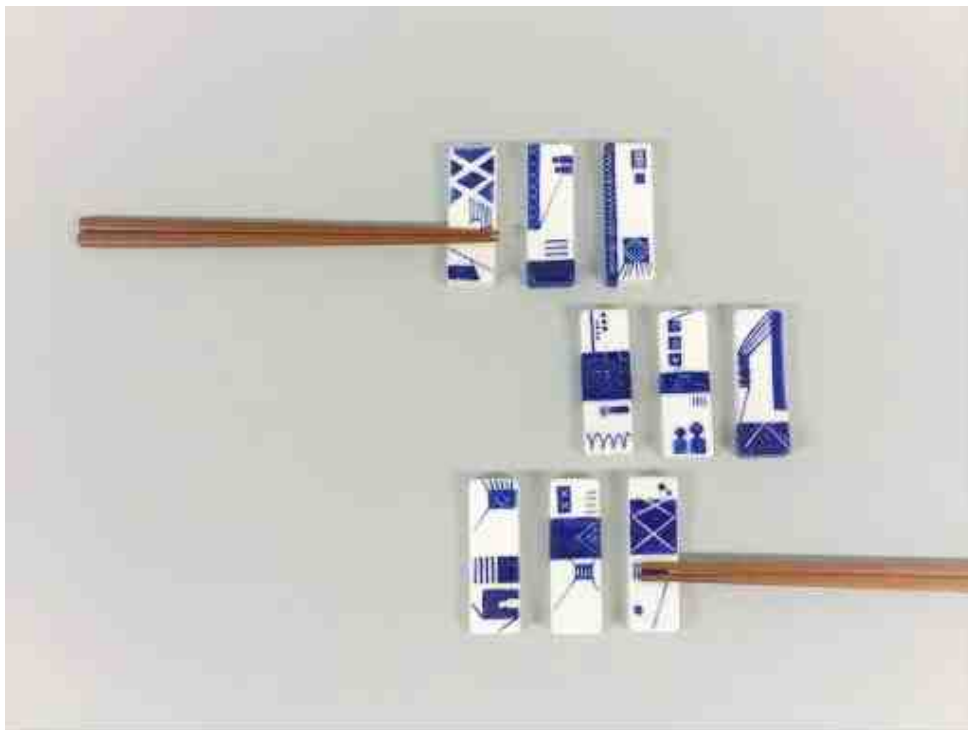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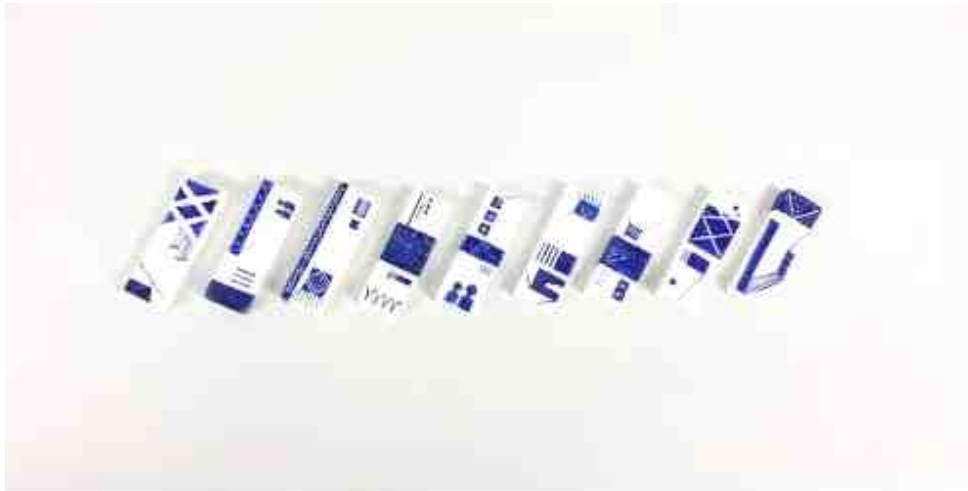
식탁위에서 사용하는 소품으로 운주 - 수저받침대를 디자인하였다.

위생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세척에도 용이해야하기에 입체적으로 굴곡진 형태보다는 사각 형태로 제한을 하였다. 슈퍼화이트 소지를 사용한 주입성형으로 기물을 제작하고 1차 소성 후, 핸드페인팅 기법을 활용하여 운주사의 천불 천탑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모두 부분적 축소하여 기하학적으로 패턴화하여 표현하였다.

수많은 문양들이 내포하는 의미들을 모아 식탁위의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그리며 가정의 풍요로움을 바라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색채는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흰색을 바탕으로 생명과 자유, 희망, 평안 등을 표현하기 위해 코발트 안료를 사용해 푸른 느낌을 주었다.

<작품 8> 운주 - 수저받침대



<작품 9> 운주 - 병마개

제작방법 : 물레성형

소 지 : 백자토

유 약 : 코발트유

소 성 : 1차 소성 850℃, 2차 소성 1250℃

사 이 즈 : 80 × 50 (mm)

운주 병마개의 소지는 백자토를 사용하였고 코발트유로 2차 소성 후 도자와 금속을 결합하여 제작하였고 제작과정은 운주사를 나타내는 천불 천탑을 불상과 석탑으로 나누어 각각 3개씩 한 세트로, 이미지 선정 후 물레성형을 통하여 일정한 원기둥 형태를 만들어 건조과정을 거쳐 부분적으로 편집해 조각하였다.

불상은 전체적으로 형태, 얼굴형, 옷주름을 있는 그대로 축소하여 표현하였고 불탑은 문양의 특징을 담은 기단을 중심으로 형태를 과감하게 편집하여 일정한 높이에 맞춰 디자인하였다.

세라믹 에폭시를 이용해 접착하여 높은 온도에 노출되지 않는 이상 병마개를 사용할 때 분리의 우려는 없다.

작품은 색감은 유약으로 나타내었고 진한 파란색을 띄는 코발트유에 물을 희석하여 붉은 코발트유로 시유하여 조각의 굴곡이 돋보이게 하였다.

웅장한 불상과 석탑을 실제 크기에 비해 극소화시켜 사용자에게 보는 재미를 준다.

<작품 9> 운주 - 병마개



<작품 10> 운주 - 명함꽃이

제작방법 : 주입성형

소 지 : 슈퍼화이트

유 약 : 코발트유

소 성 : 1차 소성 850℃, 2차 소성 1250℃

사 이 즈 : 80 × 50 (mm)

운주사는 구름이 머문다는 뜻으로의 운주(雲住)와 배를 움직인다는 뜻의 운주(運舟)로 두 가지의 뜻이 있다.

본 연구자는 운주의 두 가지 뜻을 합하여 구름이 배를 움직이는 형상으로 디자인해 제작하여 명함을 꽃아 하늘 위를 항해하는 배에 돛을 단 형태로 저 넓은 하늘 위 구름을 파도삼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배를 표현하고자하였다.

운주 명함꽃이는 백색도가 높은 슈퍼화이트 소지를 사용하였고 구름과 배의 형태를 각각 제작하여 1차 소성 전에 접합하고 반 건조 상태에서 금속 꽃이를 꽃아줄 구멍을 만든 후 초벌을 진행하였다. 코발트유로 2차 소성 후 스톤에폭시를 사용해 금속 꽃이를 접합하여 제작하였다. 굴레에서 벗어나 개인이 원하는 이상향, 즉 유토피아로 도달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작품 10> 운주 - 명함꽂이



<작품 11> 운주의 바람

제작방법 : 판성형

소 지 : 백자토

유 약 : 투명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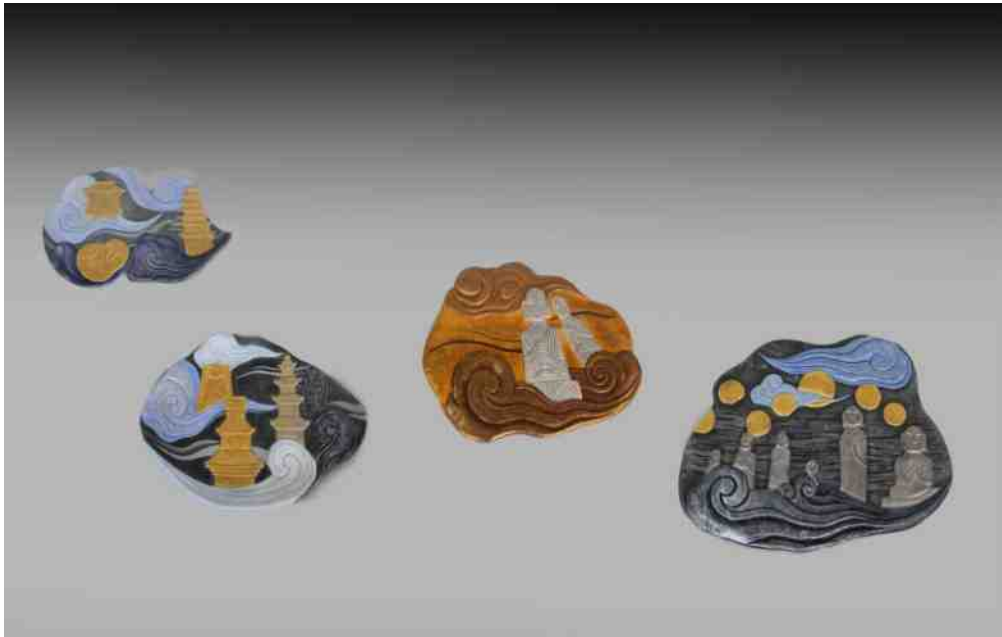
소 성 : 1차 소성 850℃, 2차 소성 1250℃

사 이 즈 : 400 × 280, 500 × 350, 440 × 370, 550 × 460 (mm)

운주의 바람은 벽걸이로 사용이 가능하고, 백자토 소지를 도판기로 판성형 후 차용한 운주사의 이미지들을 저부조로 양각하였다. 각 석탑과 석불의 특징과 문양은 선각으로 처리하였고 바탕을 제외한 요소들은 돌 질감을 주었다.

운주의 바람이란 이름의 작품으로 바람의 중의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바람은 운주사에 불어오는 바람이다. 구름이 머무는 절로 해석할 수 있는 운주사(雲住寺)를 모티브로 하였고 구름은 바람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 본 작품에서 운주사의 천불 천탑이 구름을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을 표현했고 이때의 바람은 구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두 번째 바람의 의미는 운주사 창건에 관련한 설화로 승려 도선(道詵)이 하룻밤 사이에 천불 천탑을 조성하면 세상이 바뀌고 천년동안 태평성대가 계속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마지막 불상인 와형석조여래불을 일으켜 세우지 못한 채로 아침을 맞게 된다. 이렇게 미처 이루지 못했던 염원을 천불 천탑이 구름을 타고 유토피아에 달기를 바라는 뜻의 바람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11> 운주의 바람



제5장. 결론

현대인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를 담은 상품 디자인의 필요성이 시급한 시기이다. 심미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상품의 디자인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문화 상품들은 각 지역적 특색과 문화가 내재되지 않고 있다. 여러 문화재가 있는 사찰의 경우 문화나 지역성, 문화재를 주제로 한 사찰 관광 기념품은 미비하고 대부분 해외에서 저가 상품들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역적, 문화적 특색을 살린 디자인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광주 전남의 지역 문화유산으로써 가치가 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운주사의 조형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운주사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도자 문화 상품을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종교를 떠나 문화유산으로써 지역 문화의 감성을 담은 운주사를 도자 문화 상품으로 새롭고 다양하게 디자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운주사 고유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점토만이 갖는 물성을 이용해 운주사의 특징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도자 문화 상품 제작에 노력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할 시 도자 문화상품으로써 더욱 다양한 제품군들을 디자인하고자 하였으나 사찰의 지리적 위치와 상업적 부분 때문에 식기와 소품위주의 제한적인 디자인을 한 점과, 운주사 천불 천탑의 역사적인 가치를 담아내기에는 본 연구자의 작품이 다소 미비하여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운주사의 이미지를 이용한 문화상품 디자인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이어져 운주사의 역사와 가치를 충분히 담은 디자인으로 도자와 타 재료를 결합한 다양한 문화상품으로 영역의 확장을 시도하려 한다.

결론적으로, 틀에 갇히지 않아 더욱이 가치 있고 신비로운 운주사의 천불 천탑 이미지를 이용한 도자 문화 상품 디자인 연구의 시도로 더욱 다양한 문화 상품 디자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발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

란다.

또한 실생활에 쓰일 수 있고 지역화의 감성을 내포한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디자인 연구와 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우리 지역문화의 가치를 보다 쉽게 전달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형구, 운주사 천불 천탑의 비밀, 띠앗, 2001
문화관광부, 자료로 보는 문화상품, 2002
산업자원부, 전통소재에 의한 한국 문화상품의 특성화 연구, 2000
아리엘골란, 선사시대가 남긴 세계의 모든 문양, 푸른역사, 2004
임동확, 운주사 가는 길, 문화과지성사, 1992

<간행본>

- 선미라, 문화기호학으로 풀어보는 운주사 천불 천탑의 문양들, 담론 201 Vol.9 No.1, 2006
천득영, 운주사석탑의 양식적 특성과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의미, 호남문화연구 제 54집, 2013

<학위논문>

- 고춘심, 운주사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논문, 2007
김기용, 운주사원형석탑의 윤등적 성격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논문, 2016
문소이, 운주사 이미지를 형상화한 주얼리 문화 상품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석사논문, 2002
전현정, 문화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 전통 칠 기법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2007
허학영, 도제 사찰 기념품 디자인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논문, 2009

<비문헌자료>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131&efYd=20160930#0000>], 2016
운주사, <http://www.unjusa.kr/>, 2017